

# “장수, 전북 새 도약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김관영 도지사 2026년 시·군 방문 - 장수군

## 도민과의 대화서 “도전경성 초심 끝까지 이어갈 것” 장수시니어클럽 찾아 어르신 복지 현장 어려움 살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새해를 맞아 장수군을 방문해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고 장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군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장수군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전경성(挑戰境城)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장수군을 공식 방문해 군정, 군의화와 군민, 민생 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이번 방문은 시군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주요 도정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정과 군정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첫 일정으로 장수군청을 찾아 최훈식 장수군수와 최한주 군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환영 속에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장수군의회를 방문해 군수, 군의원,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정 운영 방향과 장수군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장수한누리전당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장수군민과 군청 직원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도정 철학과 향후 비전을 설명하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사자성어로 여민유치(與民由之)를 제

시하며 “도전경성의 초심을 도민과 함께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강을 통해 도정 철학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이날 군민들은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공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친환

경 신약관광진흥지구 진입로(백운~천천) 개설, △농화면 주민지원 문제 등을 건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장수군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나는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일정 이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장수시니어클럽을 찾아 시설 관계자

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어 장계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보기에 나서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지역 상인의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최훈식 군수는 “새해를 맞아 장수군을 찾아준 데 감사드린다”며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군민이 주인인 장수’,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8일 새해를 맞아 장수군을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행정통합, 지금이 최적기”

전남·충청·경남권 통합 논의 급물살  
민주 이원택 의원, 완주·전주 통합 관련  
“완주군민들의 마음 얻는 것이 가장 중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애환을 적극 수용하는 형태의 전주와 완주행정통합 문제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입장문을 내었다.

특히 이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중인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부산과 경남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전북 소외론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8일 이 의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전북을 사랑하는 충청의 마음으로 완주·전주 통합, 이제는 결정의 시간이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5급특 국가체제 속에서 꺼져가는 전북 성장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은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논의는 선택이 아닌 전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 또한 수도권과 함께 5급 3특 중심 국가 발전 체제를 구체화하며 인구·산업·재정이 집중되는 거점 중심 전략을 분명히 하

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 흐름 속에서 전북이 중심축 없이 머뭇거리면 결과는 명확하다”며 “전북은 국가 전략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변방의 목소리로 전락하기 때문에 지금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다시 불을 붙일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도시 경향의 방향으로 통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출구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통합 반대 의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동반 성장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 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 지역 민간 단체가 찬성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전북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서를 냈으며 지난해 8~9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완주군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일정을 발표하지 못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권희성기자

# “이 대통령 사건은 조작기소... 공소 취소해야”

민주 안호영·이건태 의원

“당에 국조 추진도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과 이진태(경기 부천시청)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사건에 대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요구했다.

안호영·이진태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란 정권 시절 정치보복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획수사”라며 “재판 중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과 비상계엄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부”라며 “취임 이후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 국가 위상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이진태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했다. 코스피 4,000선 돌파,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경제 회복세도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핵심 증거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허위

진술에 불과하며, 법적 증언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방향이 수차례 바뀌었고,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 전형적인 조작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작된 기소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작기소의 부담을 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헌정 질서와 사법정의를 반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소취소만이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며, 이는 전북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정현을 익산시장, 전북 프로야구 유치 본격 행보

KBO 허구연 총재와 면담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7일 오후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방문해 허구연 총재와 면담을 갖고 전북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제11구단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면담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한 정 시장이 도지사 출마 선언 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전주권 100만 광역 프로야구단 유치’의 실천을 위한 첫 대의 행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면담은 허구연 총재와 정현을 시장을 과거 익산시에서 맺은 깊은 인연을 회상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허 총재는 야구 해설위원 시절부터 익산 리틀야구장 건립과 국가대표 야구팀 훈련장 조성 등 익산의 야구 인



프라 확충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으며 정 시장 역시 당시 허 총재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며 전국 최고의 야구 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정 시장은 “프로야구 유치는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익산에서 증명했던 스포츠 산업의 성공 경험을 전북 전체로 확산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기자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남원시의회는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